

11월 15(월) / 고전 13-16

▶ **내용요약** :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교훈했다. 바울은 그 어떤 놀라운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역설했다. 14장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령한 은사들을 추구하도록 권면했다. 특히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방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한편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했다. 부활은 확실한 소망이며, 성도는 마땅히 부활을 기대하는 태도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한 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각각 채우시오. (13장)
“그러즉 (), (), (),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이라”

▶ **생각하기** :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가장 위대한 '은사'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복음전도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11월 18일(목) / 고후 7-9

▶ **내용요약** :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소식에 기뻐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쓴 편지로 인해 후회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8-9장에서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 말했다.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태도를 소개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넘치도록 참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했다.

▶ **질문**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가? (7장)
▶ **생각하기** : 복음전도자는 부드러운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야 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월감이나 교만한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과 존중의 태도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11월 21일(일) / 갈 4-6

▶ **내용요약** :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했다. 바울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면서, 거짓 교훈에 빠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11월 16일(화) / 고후 1-3

▶ **내용요약** :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고난을 이겨내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방문과 이후의 선교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2장에서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로 인해 일어난 고린도교회의 회개에 대해 말하면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권면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복음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편지 그 자체임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설명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2장)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니”

▶ **생각하기** : 사실 바울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위로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11월 19일(금) / 고후 10-13

▶ **내용요약** :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재차 변호했다. 바울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말했다. 계속해서 바울은 11장에서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도록 경계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헌신을 자랑했는데, 이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의 지혜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함이었다. 같은 이유로 12장에서 바울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사도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신에 연약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끝 인사를 전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2장)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이라”

▶ **생각하기** : 복음전도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연약함과 환난, 심지어 억울함을 당하는 순간에 발휘된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5장에서 바울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권면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오용하여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교훈했다.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하며 성령으로 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도록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재차 경계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11월 17일(수) / 고후 4-6

▶ **내용요약** :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면서 소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 다가올 영원한 소망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권면했다. 또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적 신앙을 지적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핍박을 감당했는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했다.

▶ **질문**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 했는가? (17장)

▶ **생각하기** :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어둠을 주목하지 말고 빛을 따라가자.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소멸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가는 사람이 되자.

11월 20일(토) / 갈 1-3

▶ **내용요약** :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만약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은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해방한 거짓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교훈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하게 선포한 것이다.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 거짓 교훈으로 돌아선 모습을 지적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임을 설명했다.

▶ **질문** : 무엇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1장)

▶ **생각하기** :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 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 이에 바울은 단호한 태도로 이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웠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 **생각하기**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풍성한 유업이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 다시 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구하자.